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0일 수원 성빈센트 병원을 찾아 암 투병중인 '직지대모' 박병선 박사를 위로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위로하고...나누고

총무원장 자승스님 연말연시 맞아 '자비 포행' 암 투병중인 '直指大母' 박병선박사 위로 방문 수원 서호노인복지관 찾아 노인들에 배식봉사

“스님,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해 남은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박병선 박사)

“네, 편안하게 생활하시면서 치료받으세요. 저도 기도 드리겠습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지난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수원에 위치한 성빈센트병원을 찾아 암투병 중인 '직지대모' 박병선 박사를 위로했다. 병원장 차영미 수녀의 안내를 받아 병실을 찾자 박 박사는 “큰 스님이 찾아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제가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자

주 드려서 보살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총무원 문화부장 효탄스님이 종단에서 2005년 발간한 한글과 영문판 <직지>를 전달하자 한참동안 내용을 들여다보던 박 박사는 “직지를 연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한국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회고했다. “우리나라의 인쇄 역사를 밝히고, 한국의 예술성을 결집해 알린 끝에 세계최초 금속활자본이라는 점을 알릴 수 있었다. 또 그 내용을 영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글로 번역해 소개하자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서로 입을 모았다”며 박 박사는 “종단에서 이토록 직지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병환이 쾌유되길 기원하며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아직 할 일이 남아 계시다”고 위로하고 “병석에서 일어나 마지막까지 좋은 성과를 이뤄내길 기원드린다”며 금일봉을 전달했다.

박병선 박사의 위문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차영미 병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박 박사가) 프랑스 국적인 까닭에 보훈적용이 안돼 어려움이 많다. 병원측도 치료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차 병원장의 말을 전해들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편안하게 치료를 받도록 배려해주는 병원측에 감사드린다”고 회답했다.

박병선 박사 위문에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수원 서호노인복지관을 찾아 노인들을 대상으로 배식봉사를 했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 김용서 수원시장 등이 함께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배식은 300여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배식을 마친 스님들은 노인들과 한데 어울려 식사를 하면서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매일 이곳서 점심을 먹는다는 이미령(71, 수원 금곡동) 씨는 “스님들이 직접 음식을 전해주시는지 음식이 더욱 맛있게 느껴진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원=안직수 기자
사진 신재호 기자

“10·27교육관 부지 재검토 필요”

명예회복심의회 새 위원장 영담스님 밝혀 “조계사에는 예산맞는 건물 지을 수 없다”

서울 조계사로 결정된 10·27법난 역사교육관 건립부지가 전면 재검토된다. 지난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7차회의에서 신임 위원장에 선출된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역사교육관 건립부지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력 시사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자리에서 영담스님은 “역사교육관 건립 부지를 조계사로 정한 것은 조계종 내부에서 결정된 사항이지 위원회 차원에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담스님은 “조계사에는 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한 건립 예산 1500억원에 맞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며 “이 사안은 이미 총무원장 스님과도 조율된 내

용”이라고 덧붙여 조계종 10·27법난 역사교육관 부지선정위원회가 지난 10월 역사교육관 건립부지로 조계사를 결정했던 내용이 수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영담스님은 위원장 임기 동안 “아직까지 찾지 못한 법난 피해 사실을 밝히는 일과 역사교육관 건립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영담스님, 혜경스님, 윤원호, 이명목 위원 등 7인이 참석했으며, 위원장 선출을 마친 후 폐회했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2010년 예산 14억 8천만원

중앙신도회, 10일 중앙위 회의서 책정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지난 10일 전법회관 지하 교육관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2010년도 예산으로 14억8000만원을 책정했다.

중앙신도회는 2010년 중점사업 목표로 △신도회 조직체계 발전

및 정착-지회·지부 활성화 △교육사업 및 불교인재양성의 활성화 △온라인 포교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의료·복지 활동 가속화 △2010년 지자체 단체장 선거의 능동적 참여 및 지원 △조계사 뒷길 정비사업을 통한 성역화사업(서울

시 공동) △불교관련 산업 ‘업종 교류회’ 추진 △2013년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총회 유치 추진 △조선왕실의궤, 라마탑형 사리구 반환을 위한 가시적 활동 등 9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종단과 협의해 전국신도회와의 통합당시 합의사항인 ‘전국신도회’로의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중앙신도회 소속으로 ‘종교화합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社告

불교신문 2010 신춘문예 공모

불교신문은 불교문학 신예작가 등용문인 '2010 불교신문 신춘문예'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불교문학에 관심 있는 신진작가들의 적극적인 응모를 기대합니다.

접수기간 : 2009년 12월16일(수) 마감

공모대상 : 불교문학에 관심이 많은 신진작가

공모분야 : 단편소설-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시조-각 5매, 동화-원고지 30매 내외, 평론-원고지 60매 내외
당선작은 각 분야에서 1편을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작 선정

상금 : 단편소설 450만원,

동화/평론 각 350만원, 시/시조 250만원

당선작 발표 : 2010년 1월 1일 불교신문 신년특집호

접수처 : 서울숲 종로구 경지동 13번지 5층 전법

회관 불교신문사 신춘문예담당

문의 : (02)730-4488(신춘문예 담당)

불교신문사

社告

불교미래사회포럼 개최

불교신문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매월 '이 시대의 희망을 말한다'를 주제로 사회 각계 인사를 초청해 불교미래사회포럼을 개최합니다. 12월 포럼에서는 최문순 민주당 국회의원을 초청, 미디어법 통과가 종교방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불기2553(2009)년 12월22일(화) 오후7시

장소 : 서울 템플스테이정보센터 3층 교육관

주최 : 불교신문·불교미래사회연구소

주제 : 미디어법 통과가 종교방송에 미치는 영향

강사 : 최문순 민주당 국회의원

문의 : 불교미래사회연구소(02-725-4277)

포교원, 어린이 청소년위원회 발족했다

2면

4교구본사 월정사 야구단 '만월' 창단

5면

향일암 새해 맞이 철야 기도

귀의삼보 하옵고

희망은 보이지 않고 절망과 고난으로만 가득했던 기속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 짓고 황금으로 단청을 한 대웅전에서 철야 정진을 하며 경인년 새 해를 향일암 부처님과 함께 맞이하며 희망과 부처님의 가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제일관음기도도량 금오산 향일암
www.hyangiram.org

·일시_ 2009년 12월 31일 오후 6시 ~ 2010년 1월 1일 오전 6시

·동참금_ 10,000원 ·문의처_ 061)644-4742 644-9012 fax 061)644-2390